

1년 농사 함께 끝 맺는다



좋은관계 금속경기 7천 조합원 여러분,

강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두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한가위 명절 기쁜 마음으로 편안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농사 준비한대로 착착

올해 농사를 준비하며 우리는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친자본 정책이 힘을 얻는 가운데 자본의 공격이 닥
치는 곳 있다면 지부 전체가 함께 맞서 전체를 지키
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올해 각종 반노동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용자는 더디게 교섭에
임했습니다.

지부는 ‘처음과 끝 함께’ 기초를 세우고 모든 사업
장의 상황을 매달 모여 공유하며 힘을 집중시켜왔습
니다. 연초 새로 설립한 7개 신생노조 중 6개 사업
장(대주정공, 서한위너, 현대그린푸드경기, 유베이스수원, 나
노메덱스, 동양피스톤)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권리
의 터전을 지었습니다. 집단교섭 사업장 대다수가 추
석 전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고, 대각선사업장 교섭도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조 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신생 한국히타치화성분회, 노조를 제대로 세우
기 위해 투쟁하는 금토일산업, 대창지회에 힘을 실기
위한 추석 이후의 투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단교섭 추석 넘겨

집단교섭은 추석을 넘겼습니다. 13차 교섭(9.5)에서
지부는 “전체 사업장 같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대부분이 마무리되면
집단교섭도 마무리하고, 그룹사 사정으로 매년 교섭
이 늦어지는 우창정기, 현대캐피코 등은 자력으로 마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합의내용을 집단교섭
합의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사용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이
9월까지 온 유례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창정기가 매

각됨에 따라 이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의견일치를
하지 않고 추석을 넘겨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창의 평화 확인 후 함께 끝

지난 9월 2일 우창정기 모회사인 서연전자는 우창
포함 자회사 3곳과 함께 모베이스라는 기업으로 매
각됐습니다. 모베이스는 스마트폰 사출 등 전자업종
관련 기업이었으나 최근 자동차 부품사들을 인수하
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매각과 인수 과
정에서 자본은 대부분 이윤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 노조무력화를 시도합니다. 지부 집단교섭단은 사
업장 교섭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우창정기
를 인수한 모베이스가 원만하게 노조를 인정하고 구
구조조정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함께
마무리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균형 깨면 자비 없다

지부는 존중하는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노조
파괴 등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공격 앞에는
망설임 없이 집중해 투쟁하는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완성차 직서열모듈부품사 지회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 파괴력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업
계에 새로 진출하는 모베이스가 우창에서 이 균형을
깨뜨릴 마음을 먹는다면, 지부 모든 사업장이 일상에
서 단련해 온 힘을 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처음의 뜻 그대로, 우창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평화
와 균형을 이루는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올 한
해 농사를 함께 제대로 마무리 지읍시다.

- 좋은관계 금속경기 10기 임원 일동

자력현장! 뒷배지부!

가을걷이는 분투하는 조합원들에게

9.5(목) 집단교섭을 마친 교섭단은 태풍 직전 폭우를 뚫고 한국히타치화성, 금토일산업지회를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투쟁하고 있는 식구들 마음 한켠에 훈훈한 기운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폭우 속 축제의 장

한국히타치화성분회는 올 해 4월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맞서 8월 말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차려진 임시 조합사무실 천막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의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더 거세어지는 빗줄기를 뚫고 금토일산업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회는 작년 첫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외부 노무담당자를 영입, 조합활동 트집 잡고 이주노동자 해고를 시도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꿈꾸는 사측에 맞서 당차게 파업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조합원들의 노랫소리, 박수소리, ‘투쟁~!’ 구호가 흥겨운 음악처럼 공장 앞을 울렸습니다. 금토일지회의 주제곡 아모르파티에 맞춰 다같이 쿵쾅쿵쾅 춤을 췄습니다. 교섭위원들은 “파업하는 조합원들 표정이 엄청 밝다. 이게 바로 파업 축제”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명절 후에도 힘 뻑!

사업장들은 명절에도 투쟁으로 고생할 사업장들을 생각하며 투쟁기금을 바리바리 챙겨와 전했습니다. 지부는 명절 맛이 떡을 맞춰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권리의 터전을 제대로 가꾸고자 싸우는 동료들의 얼굴에도, 이들의 삶에 기여하고 함께 가는 지부 모든 조합원의 얼굴에도 매일 축제 같은 미소가 드리워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갑시다.



▲사진 위쪽부터 ① 한국히타치화성분회 임시조합사무실 천막에 옹기종기 ② 찌렁찌렁 금토일산업지회 농성천막 ③ 추석맛이 떡나눔(월화수목 금토일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투쟁이 아모~르파티, 권리관계자준감회로 히타치화성) ④투쟁기금 전달은 안 보이는데서 수줍게?^^